

도심사찰-농촌 하나됐네

조계사, 결연마을 양양 기정리서 농촌체험 직거래장터 개설 등 도농공동체 구현키로

“피(피초)는 보시다시피 벼와 거의 비슷하게 생겨서 구분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피가 벼의 생활환경을 그대로 침해하여 번식하기 때문에 꼭 뽑아야 합니다.”

조계사주지 원담(가) 1일 농촌 체험을 진행한 7월 4일 양양 기정리 논에서 마을 주민 김희우(61)씨가 조계사 스님과 신도들에게 피를 뽑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직접 피와 벼를 보면서 설명을 들었지만, 처음 눈에 들어온 신도들은 “도대체 구분을 못하겠다”고 아우성이다.

신도들과 달리 출가 초기 논과 밭에서 온갖 농사일을 다 해본 주지 원담 스님과 부주지 도문 스님은 능숙한 솜씨를 발휘한다.

조계사 대중 50여명은 피를 뽑고 난 후 경운기를 타고 감자밭으로 향했다. 마을 뒷산 중턱에 자리한 감자밭에서는 벌써 마을주민들이 일찌감치 자리를 잡고 작업을

하고 있다. 낮은 호미질에 힘이 들지만 실한 감자들이 모습을 드러내자 탄성이 절로 나온다.

이연숙 신도회장은 “요즘 농촌이 너무 어려워 미력이나마 보태고자 체험에 참여했다”며 “이렇게 좋은 감자들이 왜 제값을 받지 못하는지 참 안타깝다”고 말한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렇게 논고랑의 피를 뽑고 감자를 캐면서 조계사 대중과 기정리 마을 주민은 어느새 친자매보다 더 사이좋은 언니-동생 사이가 되었다.

조계사가 양양군 5개 마을과 자매결연한 것은 지난 5월 12일.

마을 주민 이순자(60)씨는 “지난 4월 산불 때 5개 가옥과 인근 야산의 70%가 소실됐었다”며 “조계사 스님들과 신도들이 이렇게 먼 곳까지 와서 일손을 도와주시니 그저 고마울 따름”이라고 인사를 전했다.

이에 앞서 원담 스님은 이진호 양양군수와 기정리 마을 이장 정연



조계사 주지 원담 스님과 기정리 주민 김희우씨가 논에서 잡초를 뽑던 도중 대화 나누고 있다.

원담스님도 “앞으로 매년 4차례에 걸쳐 직거래장터를 개설하고 텀플스테이와 팜스테이(Farm stay)를 연계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며 “조계사와 기정리가 도농공동체의 새로운 전형을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하기도 했다.

원담스님도 “앞으로 매년 4차례에 걸쳐 직거래장터를 개설하고 텀플스테이와 팜스테이(Farm stay)를 연계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며 “조계사와 기정리가 도농공동체의 새로운 전형을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하기도 했다.

원담스님도 “앞으로 매년 4차례에 걸쳐 직거래장터를 개설하고 텀플스테이와 팜스테이(Farm stay)를 연계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며 “조계사와 기정리가 도농공동체의 새로운 전형을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하기도 했다.

글·사진/양양=유철주 기자

대광고, 예배 폐지 거절 종자연구, 교육청에 청원

강의석군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서울 대광고가 종교자유정책 연구원(준비위원장 박광서, 이하 종자연구)이 요청한 ‘5분예배 폐지’ 등에 대해 사실상 문제가 없다며 거부의사를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대광고는 7월 1일 종자연구이 요청한 5분 예배 폐지와 수요일 학년 예배·종교수업의 자율적 시행 등에 대해 “5분 예배와 수요일 예배 등은 강요하지 않고 있으며 단체 관계자들이 찾아와도 면담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종자연구는 서울시 교육청에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종자연구 박광서 준비위원장은 “대광고가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서울시 교육청에 종교강요 행위를 중지하라는 시정명령권 발동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철주 기자

천성산 조사 표류 시추 허가서 발급 지연 탓

천성산 환경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표류하고 있다.

지난 2월 지을 스님이 100일 단식을 회향하면서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천성산 대책위가 환경조사실시를 합의하고 세부내용에 대한 협의를 마쳤지만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조사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사가 시작되지 못한 표면적인 이유는 천성산 시추에 대한 공식 허가서가 발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천성산이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지자체인 양산시와 경상남도의 승인이 있어야 시추가 가능하다.

천성산 대책위 서재철 간사는 “철도공단이 지체처럼 의도적으로 조사를 지연시킨다면 환경조사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철주 기자

교수불자대회 8월 17~19일

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김용표)가 교불련은 8월 17~19일 인제 백담사 만해마을에서 2005 한국교수불자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중앙대 류종민, 중국청화대 루웨이, 동국대 정병조 교수와 각각 ‘한국문화와 불교’ ‘신앙의 위기와 생태의 위기’ ‘불교의 신앙과 수행체계’ 등을 주제로 기초강연을 펼친다. (02)720-6618

박봉영기자



7월 2일 나눔의 집을 방문한 노리코 변호사(왼쪽)와 조배숙 의원(왼쪽 상단) 등이 이옥선 할머니(오른쪽)에게 선물을 전달했다.

日여변호사들 위안부 할머니 방문

“우리 보고 돈을 벌기 위해 자진해서 위안부가 됐더니, 그런 원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말을 듣고 내가 어떻게 일본 사람들을 받게 됩니까?”

7월 2일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원장 원행)’. 평소 온화한 얼굴이던 이옥선(82) 할머니의 목소리가 카랑카랑하게 울렸다. 할머니가 흥분한 이유는 이날 나눔의 집을 찾아온 일본인들 탓이었다.

이옥선 할머니의 열변을 들으며 때로는 고개를 끄덕이고 때로는 침뚫는 표정을 짓는 방문자들은 ‘자유변호사회’라는 일본 여성변호사 단체 회원 25명이다. 잘못된 역사에 대한 인식을 바로세우고 ‘여성’이라는 동질감 속에 할머니들을 찾은 일본 여성변호사들은 그래서 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들의 노력은 국적을 떠나 피해 할머니들을 고통을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 됐다.

이날 만남은 열린우리당 조배숙 의원의 노력으로 성사됐다. 오모리 변호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과 문제에 대해 더 적극적인 변호활동은 물론 서명운동까지 벌어져야겠다”는 뜻을 밝혔다.

글·사진=김강진 기자



불교시설 위장 납골묘 말성

불교계 시설로 등록된 납골묘 운영단체가 현행 법규정을 악용해 납골시설을 호화·대형화 하는 등 편법운영으로 말성을 빚고 있다.

7월 6일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와 관련부처 합동으로 경기도 등의 1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공장사시설 설치·관리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한 행법상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하는 대규모 납골시설은 종교단체나 재단법인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이용해 종단도 불분명한 사찰을 매입

한 후 사찰규모보다 큰 납골당을 설치·운영하다 적발됐다.

이들 가운데 3곳은 불교 종단인 것처럼 사찰을 장건하거나 명의 빌린 후 납골당을 설치했으며, 5곳은 영리목적으로 지나치게 큰 규모의 납골당을 설치하다 자금난으로 공사를 중단한 경우였다.

이처럼 종교 시설의 구축을 갖추기 위해 불교시설로 위장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불교계 차원의 관리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강진 기자

목탁소리

올 10월 14~15일은 불교음악제에서 특별한 날로 기억될 것 같다. 불교계 최초의 오페라단과 함께 하는 창작오페라 ‘아수다라와 아난다의 고백’이 무대에 오른다. 또 2005 대한민국 불교음악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진행될 음악행사 날짜 왜 같을까

음악행사 날짜 왜 같을까

불교음악계 대규모 행사가 한 달 동시에 잡힌 것이 의아스럽다. 더욱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두 행사 모두 전국의 불교합창단 없이도 가능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전국의 불교합창단을 아우르는 불교합창연합회(총연합회 산하기구)는 한 불교음악단체와 오페라를 공동으로 주

최하는 까닭에 행사에서 발을 뺄 수 없다. 그러나 연합회의 서울·경기 합창단들은 찬불가 경연대회 참여 역시 희망하고 있다.

사면초가의 난감한 현실 앞에서 양 주최측은 서로 “행사날을 잡은 것은 우리가 먼저다”, “모르고 그랬다, 알고 그랬다” 등의 얘기가 수없이 오가더니 “둘 중의 하나는 못하게 할 것”이라는 걸 “이러는 감정 섞인 말까지 흘러나온다. 일각에서는 행사를 주관하는 양쪽 불교음악 단체의 깊은 갈등의 골이 이번 건을 계기로 표출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논란 가운데 한쪽에서 경연 예선 날짜를 타지역 행사 예정일과 맞바꾸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전해진다. 많은 불자들이 ‘귀하게 열리는 두 음악행사 모두 보고 싶어 한다.’

강신재 기자(취재부)

수경사 공정보도 논란

화상 이동학대 ‘사진 짜깁기’ 의혹 등 제기

이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수경사에 대한 방송사의 보도 공정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건의 진위 논란이 일고 있다.

6월 25일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 방영 당시 충격적 영상 탓에 사회적 여론은 수경사에 대한 비난 일색이었던 반면, 7월 들어 방송사의 선전적 보도태도에 대한 문제가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또 은평야동학대에방센터(개신교 굿네이버스 산하)가 방송사와 공모해 위장봉사를 투입했으며, 촬영사실을 모르는 사미니 스님으로부터 진술을 유도했음이 사실로 드러났고 있다.

심각한 것은 ‘그것이 알고 싶다’ 팀이 수경사 문제를 다루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혀내기보다 추측에 따른 정황이나 자원봉사자의 일

방적 의견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아동의 화상 사진도 지난 1월 자원봉사자에 의해 입은 화상을 5월 취재 때 발생한 것처럼 교묘하게 짜깁기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조계종 호법부가 수경사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은평야동학대에방센터 측에 관련 자료 협조를 요청했지만 ‘내부 자료’라는 이유로 거절한 것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다.

이에 중단 관계자는 “제기되고 있는 의혹을 확인한 후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중단차원의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강원도 모 암자로 피신했던 수경사 주지와 사미니는 은평경찰서로 연행돼, 현재(7월 8일)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다.

김강진 기자

최첨단 Thunderstorm 원리로 세계시장을 원전 석권한 - 리빙에어

EcoQuest

스님, 불자님 자연의 신선한 공기를 꿈꾸십니까?

無 필터 無 병균 無 악취 침단기술방식 공기청정기 Living Air

미국 EcoQuest사에서 제작된 LivingAir는 공기청정기 시장에서 최고의 격찬을 받고있는 세계적인 공기청정기 시스템으로서 최첨단 신기술(Thunderstorm : 천둥 번개+RCI : Radiant Catalytic Ionization : 광촉매방식)의 신산화작용(AOP)으로 악취와 VOC(S(휘발성 유기화합물))을 감소 시킬과 동시에 살균 효과로 언제나 숲속에서 있는듯한 상쾌한 기분을 유지시켜 줍니다.

◆ 새집증후군으로부터 배출되는 유기화합물 분해
 ◆ 환경오염으로 오는 비염, 알레르기, 아토피등의 질병예방
 ◆ 애원동물의 털, 먼지, 음식냄새, 담배냄새 제거 탁월
 ◆ 곰팡이, 박테리아 살균 및 습기로 인한 악취제거
 ◆ 유해냄새 및 담배연기로 인한 두통, 만성피로감에서 탈피

◆ 산업중역 연구원(시험성적표) ◆ 고려대학교수 축정확인서
 ◆ 캐나다 환경청 인증서 ◆ 미국환경청 인증서

Breeze AT
 - 공기청정기부분 미국 제1의 매출실적
 - 소독기능 장치 / 리모콘 기능
 - 소음이 거의 없음
 - 오존발생 일시 제거기능
 - 5원에서 70명까지 공간에 알맞게 조절 사용

XL-15Classic
 - 제작 20년의 기술축적
 - 5원에서 84명까지 공간에 알맞게 조절 사용
 - 필터 교환의 번거로움이 없어 비용이 절감
 - 높이 30cm, 폭20cm, 무게8kg으로 자유롭게 이동 설치
 - 카드플레이트의 세척만으로 번영구적으로 사용

Fresh Air
 - 해외 정화를 위한 정확한 공간의 면적을 표시해 주며, 조절 가능한 살균방식에 남은 시간을 알려줍니다. 새로운 SynAirG5 시스템은 광촉매 기술로 하위급 보다 빠르고 더욱 효과적인 에코코트 과정을 축적합니다.

■ 오투에어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93-7 이오빌딩 518호) ■ TEL : 02)2055-0202 ■ FAX : 02)2055-0279 ■ www.o2air.net